

고령화·과로... “운전사 건강·체력 택시가 시내버스보다 심각”



광주지역 시내버스 운전사들의 건강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광주시 동구 문화전당역 승강장에서 버스에 오르는 시민들의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대중교통 운전사 건강·체력 점검

법인택시 22%·개인택시 52%가 61세 이상 ... 고령운전자 사망사고 급증세

2시간 운행·30분 휴식 블랙박스 통해 확인... 위반 땐 면허취소·사업체 처벌을

광주지역 시내버스 운전사들의 건강과 운동능력이 떨어지면 자칫 대중교통수단이 ‘달리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최근 국내 곳곳에서 정산을 잃은 대중교통 운전자들 탓에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정부도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광주시도 지난해 버스운전자 조사에 이어 올해는 버스 운전자에 비해 건강과 운동 능력 저하가 심한 것으로 추측되는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건강·체력을 측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운전자 증가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과 주기적인 건강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고 대처 못하는 대중교통 운전사 =지난 1월 10일 낮 12시5분께, 광주 서구 능성동 상공회의소 인근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잠깐 정신을 잃은 A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5차로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던 할머니 등 4명을 들이받았다. 이에 광주는 최근 택시운전자에 대한 건강 상태도 점검하고 있고 그 결과는 올 연말에 나온다.

하지만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광주지역 택시 운전사의 건강·체력은 버스 운전사보다 상태가 훨씬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 오랜 시간 차 안에 앉아 운전하다 보니 운동 부족에 시달리고, 고령화에 따라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 탓이다.

특히 광주지역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법인택시 운전기사 3698명 중 61세~70세가 21.2%인 784명, 71세 이상 40명(1%)이다. 개인택시는 전체 운전자 4793명 중 61~70세는 44.6%인 2137명, 71세 이상도 341명(7.1%)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1년 605명에서 2015년 815명으로 34.

7% 늘었다. 이 기간 비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가 4594명에서 3802명으로 오히려 17.2%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10만 명당 사망자 수로 환산하면 비고령운전자는 13.6명, 고령운전자는 35.6명이 된다. 고령운전자 사고로 사망한 이가 세 배나 많은 것이다.

◇근무 환경 개선 등 시스템 만들어야 =고령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실정이다. 미국은 2005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계획을 세웠고, 일본은 1998년부터 운전 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택시기사도 포함하겠다고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격유지검사는 고령의 대중교통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65~69세 운전자는 3년, 70세 이상 운전자는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개인택시 면허 자체가 하나의 사유재산인데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나마 광주시는 지난해 버스기사에 이어 올해는 택시기사의 건강·체력 측정을 진행하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회 조오섭(민·북구2)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대중교통 지원 및 환경개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개정안’이 제정되면서 대중교통수단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관리가 본격화됐다.

광주시는 또, 올해 대중교통 운전사의 뇌심혈관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수업 종사자의 건강관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건강관리 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조오섭 시의원은 “고령 운전자들의 일자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게 해야 한다”면서 “2시간 운행하면 30분간 강제로 휴식하도록 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휴식이 확인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체를 처벌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新한반도 평화비전 ‘베를린 구상’ 시동

군사·적십자 회담 제안 북한 호응 여부 따라 남북관계 흐름 좌우될 듯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7일 북한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하면서 북한의 호응 여부가 주목된다.

두 회담의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신(新) 한반도 평화비전’,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 초반 남북관계의 흐름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여러 남북 현안 가운데 군사 분야와 인도 분야를 먼저 추진하는 것은 엄혹한 한반도 상황과 노령화된 이산가족을 고려하면 가장 시급한 의제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과 상대적으로 관계없는 영역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관건은 북한이 이런 우리 정부의 회담 제안에 호응할지 여부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군사회담에 나올 가능성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논의할 적십자회담에 응할 가능성보다는 높다는 분석이 많다.

우선 군사회담 의제인 ‘상호 적대행위 중지’는 북한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살포 등을 이른바 ‘체제 존엄’과 관련된 문제로 여겨 관심이 높고, 북한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자 남북 간 통신채널을 단절했으면서도 그해 5월 군 통신선을 이용해 우리 측에 군사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이 우리측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면서 무응답하거나, 8월로 예정된 올지프리트가디언(UFG) 훈련 중단을 우선 요구하면서 역제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할 적십자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많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여중생 12명과, 탈북한 뒤 남한에 정착했지만 복수를 요구하고 있는 김연희씨의 송환 없이는 이산가족 상봉은 없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펴왔다. 북한은 15일 논평에서도 “북남사이의 인도주의적 협력사업들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탈북 여중생원과 김연희씨 송환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정부는 탈북 여중생원들은 자유의사로 귀순했고 우리 국민인 김연희씨를 북으로 돌려보낼 법적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이를 계속 문제 삼으면 설득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지난 2015년 10월 이후 1년 9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제안대로 10월 4일에 열린다면 2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무안출발 일본여행

2017. 07. 07(금) ㄴ~우~욱~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선착순 한정 특가

선박+항공 711 718

3일 북큐슈 298,000원 부터

4일 북큐슈·아마구치 398,000원 부터

항공 3일 721 728

북큐슈 3일 549,000원 부터

큐슈·아마구치 3일 699,000원 부터

항공 4일·5일

북큐슈 4일 649,000원 부터 81 85 88

큐슈·오사카 5일 698,000원 부터 820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TAX포함)부터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 차량, 전 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공통조건: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보증금 가입(해외여행: 1만원, 국내여행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불포함사항: 개인 여권 및 경비, 기사&가이드 경비(W30,000/인)

다낭 무안출발

베트남항공

여름 휴가기간(3박5일) 단, 4회!

7/30(일), 8/3(목), 8/7(월), 8/11(금)

[실속] 다낭·후에·호이안 999,000원 부터

(둘째날 오전 자유시간)

- 포함사항: 무안~다낭 왕복항공료,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어 가이드,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차량 배낭
- 불포함사항: 현지 가이드 및 기사 경비(성인 \$40, 만 12세 미만 \$30), 개인 경비, 선택 관광, 메디치, 싱글차지(3박 - 총액 \$120, 특급 \$210, 초특급 \$315)

다낭·후에·호이안 1,299,000원 부터

*포함사항: 무안~다낭 왕복항공료,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어 가이드,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차량 배낭
*공통조건: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보증금 가입(해외여행: 1만원, 국내여행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불포함사항: 개인 여권 및 경비, 기사&가이드 경비(W30,000/인)

제주도 올레 2박3일

289,000원 부터

~ 2017년 12월 31일 까지

울릉도&독도 2박3일

464,000원 부터

홍도&흑산도 1박 2일

245,000원 부터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주다2003-1호

◆ 공통조건: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보증금 가입(해외여행: 1만원, 국내여행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기간 1인 기준 ◆ 예약시 계약서(약관)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입장료,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봉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